

『대순진리회요람』의 성(誠)에 관한 고찰

최치봉*

■ 국문요약

종단 대내외적으로 삼요체의 첫 번째인 성(誠)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개의 연구 주제에 따른 항목에 따라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들을 인용해 그 주장의 논거로 사용할 뿐, 우당의 해석인 『대순진리회요람』의 성은 단일 주제로 연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우당이 직접 해석한 성의 개념이 기존 논문에서는 개개 주장의 논거로 사용될 뿐, 그 자체에 대한 구성이나 구조 및 의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기존 연구 방식이 아닌 우당이 감수한 『대순진리회요람』을 기준하여 성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성을 밝힌 구절은 수도인의 입장으로 성에 대한 깨달음, 목적, 전제, 원리, 실천 등의 핵심이 한 문장에 축약되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서두의 “도즉아아즉도(道卽我我卽道)”는 도성(道誠)과 자성(自誠)은 서로 철저히 구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서 마땅히 도성을 깨닫고, 자신의 자성으로 천리를 받들고 순응하여 도성을 구현할 것을 언급한다. 수도의 기본자세로서 성은 ‘성하고자 함[誠之者]’에 초점이 있으며,

* 아시아종교연구원 연구원, E-mail: awsdrf42@naver.com
北京大學《儒藏》中心, 儒學院 博士研究生

우당은 『대순진리회요람』을 통해 성하고자 함에 대한 깨달음과 목적, 전제와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대순진리회요람』, 성(誠), 도성(道誠), 자성(自誠), 정성(精誠)

I. 들어가는 말

II. 『대순진리회요람』의 성(誠)에 관한 원문

III. 『대순진리회요람』의 성(誠)에 관한 이해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대순사상에서 성(誠)은 신조이자 요체로, 신앙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점과 수도의 기본자세를 일컫는다.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우당은 “성현으로 추존받은 옛사람은 성(誠)을 일생 동안 값진 보배로 삼아 지성으로 진리를 수행한 분들이다.”¹⁾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이 예전의 성현으로부터 지금의 대순진리회에 이르기까지 고금을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옛사람들이 보배로 여긴 성은 특히 성리학에서 천인관계의 구도로 개념화되어 다루어졌다. 성리학에서 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구절을 뽑으려면 아래의 구절을 언급할 수 있다.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성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도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절로 도에 맞으니 성인이다. 성해지려고 하는 자는 선을 택하여 굳게 지키는 자이다.²⁾

『대순지침』에서도 “성(誠)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誠)하고자 함은

1)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41.

2) 『중용집주』 20章,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不思而得從容中道聖人也. 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성으로 바르게 도 닦기를 힘써야 한다.”³⁾고 하여 위의 구절이 언급되고 있다. 다음 장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당은 성에 대한 여러 훈시를 남겼고,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성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대순지침』이나 훈시를 살펴볼 때, 우당이 성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학문적 해석을 지양하고 수도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성을 밝힌 구절은 수도인의 입장으로 성에 대한 깨달음, 목적, 전제, 원리, 실천 등의 핵심이 한 문장에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단 대내외적으로 삼요체의 첫 번째인 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⁴⁾ 특히 기존에 연구에서는 선진유학과 신유학, 조선의 유학 및 동학 등과 관련해서 성이 가지는 의미를 언급하고,⁵⁾ 이어서 대순사상에서 성이 가지는 의미를 성심(誠心), 지성(至誠), 정성(精誠), 성의(誠意) 등의 여러 측면으로 항목화하여 그 의미와 실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⁶⁾ 그리고 개개의 연구 주제에 따른 항목에 따라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의 구절들을 인용해 그 주장

3) 『대순지침』, p.41.

4) 특히 『대순사상논총』 9집과 『대순진리학술논총』 8집은 誠 특별호로 구성되어 모두 20여편의 논문으로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5) 김정태,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9 (2000); 박승식, 「성사상과 수도」, 『대순사상논총』 9 (2000); 양무복, 「성의 본질과 성사상의 실천적 구현」, 『대순사상논총』 9 (2000); 윤기봉, 「종교수도론 안에서의 삼요체 의미구조: 성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9 (2000); 이경원, 「성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 『대순사상논총』 9 (2000); 이항녕, 「성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9 (2000); 이후설, 「성에 관한 논의」, 『대순회보』 62 (1998); 주현철, 「성의 내외향성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9 (2000); 황종원, 「대순진리와 동학의 성격신 비교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등.

6) 성을 성심, 지성, 정성, 성의로 논의하였다. 고남식, 「성과 인간의 가치창조」, 『대순사상논총』 9 (2000), pp.279-288; 성을 요체, 천도·천리, 만물 존재의 근원, 신인감응의 매개, 운수, 정기신 합일의 측면으로 분류화하였다. 김정태,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9 (2000), pp.312-331; 성을 내향적 관점과 외향적 관점으로 구분 지었다. 주현철, 「성의 내외향성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9 (2000), pp.432-443; 성을 본질, 천성,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김홍철, 「성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pp.50-56; 성을 진실, 정성, 일심으로 논의하였다.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신조 성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pp.356-360 등.

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우당이 정의한 성의 개념이 기존 논문에서는 개개 주장의 논거로 사용될 뿐, 그 자체에 대한 구성이나 구조 및 의미에 관한 문헌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기존 연구 방식이 아닌 우당이 감수한 『대순진리회요람』을 기준으로 하여 성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II. 『대순진리회요람』의 성(誠)에 관한 원문

『대순진리회요람』 중에 신조는 1956년에 발행된 『태극도통감(太極道通鑑)』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당시 태극도에서 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던 우당이 정산의 뜻을 받들어 간행한 것이다.⁷⁾ 원문과 『대순진리회요람』의 성을 비교하면 한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몇 구절이 변용되었을 뿐, 내용 면에서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표 1〉 『태극도통감』과 『대순진리회요람』의 성(誠) 비교표

단락⑧)	『태극도통감』(1956年) - 誠	『대순진리회요람』(1969年) - 誠
1	道卽我我卽道の 境地에서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境地)에서
2	心靈을 統一하여 萬化度濟에 이바지할 지니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할지니
3	心은 一身에 君臨하여 萬機를 統率理用하나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全體)를 통솔(統率) 이용(理用)하나니
4	그럼으로 一身思慮動靜이 惟心所到라 有其心則有之하고 無其心則無之하나니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5	誠은 恒常綿綿密密하며 無間無息하여 惟恐不足함을 이름이라.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不足)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름이다.

7) 차선근, 「중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1956년에 발행된 『태극도통감』은 도진님께서 도주님의 뜻을 받들어 간행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연구 자료로 삼기에 손색이 없다.”

성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과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부분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언급하자면 3) 단락에서 요람에서 “일신을 주관한다”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일신(一身)에 군림(君臨)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군림이란 “임금으로서 나라를 거느려 다스림”을 뜻하므로, 마음이 한 몸의 주인으로서 이를 주재함을 임금의 통치에 비유한 것이다. 4) 단락은 요람에서는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어법상 한 몸을 위하거나 보전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국한하여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원문의 “일신사유동정(一身思慮動靜)”을 참조할 때 이는 “한 몸의 사유와 동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 몸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염려(혹은 사려) 그리고 외면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멈추게 하여 통제함의 측면 모두가 마음에 달려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평이하게 독해 된다. 5) 단락을 보면 원문에서 ‘성’을 요람에서는 ‘정성’이라고 고쳐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마지막에 성은 ‘성자(誠者)’가 아닌 ‘성지자(誠之者)’를 뜻하는 것으로 즉, 성하고자 함이 정성임을 직접적으로 풀어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Ⅲ. 『대순진리회요람』의 성(誠)에 관한 이해

1.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도(道)이다. 여기서 도와 나라는 두 가지 경계가 있음과 이 두 가지 경계는 본래 나뉘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원래 하나의 성

8) 단락의 구분은 필자가 이해를 위해 임의로 나눈 것으로, 『태극도통감』과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을 이렇게 두 가지 경계로 나누어 설명함은 “성 자체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형이상(形而上)의 공덕이요, 인간의 성은 형이하(形而下)의 유기유정(有機有情)”⁹⁾이기 때문이다. 즉 형상을 벗어난 원리로서 본래의 성과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표 2> 성(誠)의 두 가지 경계

誠	도(道)의 범주	성자(誠者)	하늘의 도	도성(道誠)	형이상
	아(我)의 범주	성지자(誠之者)	사람의 도	자성(自誠)	형이하

앞서 언급한 “성(誠)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誠)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¹⁰⁾라는 말은 성이 도의 다른 표현임을 뜻한다. 하늘의 도인 성(誠)은 “천리(天理)의 간단없는 불식지공덕(不息之功德)의 지속으로, 생명이 존재하여 만물이 생성하고 양육번성하는 변함없는 순환왕복의 생생지리(生生之理)”이며, 사람의 도인 성지(誠之)는 “이 천리의 성(誠)의 덕으로 살고 있음을 믿고 깨달아 천리를 받들어 나가는 일”을 뜻한다.¹¹⁾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는 도성(道誠)과 자성(自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불일이이(不一以二)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自誠)이 도성(道誠)의 정석(定石)¹²⁾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¹³⁾라는 『대순지침』의 구절을 살펴보면, 우선 본심이자 본연의 양심은 어질고 선한 나의 성(自誠)과 하나로써 둘이 아니다. 이러한 나의 성은 형이상인 도성(道誠)의 정해진 방식으로 형이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이러한 도성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생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도성과 자성이 없다면 만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도의 성(誠)함으로 생명이 존재하고 만물이 생성된 것이므로, 인간

9) 『도전님 훈시』 (1985. 7. 3).

10) 『대순지침』, p.41.

11) 『도전님 훈시』 (1985. 7. 3) 참조.

12) 정석(定石): 사물의 처리에 정하여져 있는 일정한 방식.

13) 『대순지침』, p.51.

또한 하늘의 도를 품고 성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도와 나,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 도성과 자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도의 근원과 성의 덕을 믿고 깨달아 천리를 받들고 이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2. “심령을 통일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할지니”

천리를 받들고 도에 순응해야 함을 깨달은 뒤 인간으로서 도달해야 할 목적은 바로 심령(心靈)을 통일하는 것이다.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을 말한다. 성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자면, 마음은 자성의 범주이고 영은 도성의 범주가 된다.

도인으로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 영(靈)이다. 정성이란 도인으로서 마음과 영, 심령(心靈)을 통일하는 것이다. 도가 곧 나요, 내가 바로 도라는 경지에서 마음과 영, 심령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무소불능(無所不能)이다. … **정성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영을 통하는 것이다.** 심령을 통일시키는 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 마음만 밝아지면 무소불능하게 되는 것이다. 심령을 통일하면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할 수 있다.¹⁴⁾

정성(精誠)은 곧 ‘사람의 도’이자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훈사에서 “정성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자성[心]을 도성[靈]과 통하게 해야 함을 언급한 것으로 심령을 통일하는 것이 곧 정성의 목적이 된다. 자성이 도성에 이른다든 것에서 이것을 지성(至誠)¹⁵⁾이라 칭할 수 있고, 자성이 본래의 참된 도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진성(眞誠)¹⁶⁾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 본래의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품을 깨닫는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에서 마음과 영이 통해 나의 마음이 밝아

14) 『도전담 훈시』 (1993. 7. 11).

15) 『대순지침』, p.75.

16) 같은 책, p.51.

지면 진실무망(眞實無妄)의 지성과 진성에 이루게 되고, 도성을 자성으로 온전히 구현하게 된다.

주자(朱子)는 진실무망에 대하여 “성은 진실무망(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음)을 이르니 하늘의 이치 그 자체이고, 성하고자 함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하고자 하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함”¹⁷⁾을 말하였다. 우당은 진실무망에 대해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이를 통해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진다고 밝혔다.¹⁸⁾ 신과 같아진다는 것은 천지에 가득 찬 신명이 만물을 생육할 수 있게 하듯이 사람도 마음을 밝혀 지성에 이르러 창생의 생명과 삶을 구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곧 만화도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만화도제(萬化度濟)는 심령을 통일한 결과로 ‘만화(萬化)’란 천만 가지로 한없이 천지만물이 생육하는 작용을, ‘도제(度濟)’는 창생이나 중생을 구제하거나 돕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만화도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천지인 삼재 중 하나인 창생을 돕고 구제하여, 성에 의한 하늘의 이치에 따라 만물이 온전히 생생화육(生生化育)할 수 있도록 도인들이 이바지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나니”

『대순진리회요람』에는 “사람의 행동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¹⁹⁾, 『대순지침』에는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 이용한다.”²⁰⁾라고 언급되고 있다. 한 몸의 행동과 기능을 마음이 주관한다는 것이며, 전체를 통솔 이용한다는 것은 만기를 통솔 이용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이 도성을

17) 『중용집주』 20章, “誠者, 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誠之者, 未能眞實無妄而欲其眞實無妄之謂, 人事之當然也.”

18) 『대순지침』, p.75.

19)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p.15.

20) 『대순지침』, p.48.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말한다. 곧 성을 하고자 함에 필수 전제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한 몸에 임해 있다. 한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전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 것이다. 만기(萬機)를 움직이는 것이다. … 내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만 가지의 기거동작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해서 모든 것을 통솔·이용한다.²¹⁾

만 가지 기거동작을 마음이 통제한다는 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된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²²⁾라는 『전경』의 구절은 결국 나의 몸으로 외부로 표현되는 일체는 마음을 중심으로 표출되는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만기는 특히 『태극도통감』에서 보이는 ‘군림(君臨)’의 뜻과 상응하여, 사전적으로 “정치상의 모든 중요한 기틀”이나 “임금이 보살피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 “천하의 정치(政治)”를 뜻하기도 한다.²³⁾ 즉 마음이 한 몸의 행동과 기능을 주관함을 임금이 나라에 기틀을 바로 잡고 정치를 하거나 정무를 담당하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앞서 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가 사람의 마음임이 언급되었는데, 본 단락에서는 마음에 대한 부연과 동시에 도성 구현을 위한 마음의

21) 『도전님 훈시』(1993. 7. 11).

22) 『전경』(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범 1장 11절.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만기(萬機)」(<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B%A7%8C%EA%B8%B0>, 2022. 11. 8. 접속)

작용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만기는 신체적 움직임과 행동의 외면적 육체 활동에 대해 주로 설명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생각과 염려(念慮)의 내면적 정신활동까지 마음이 주관함을 언급하고 있다. 생각은 대상에 대한 이해나 판단, 분별, 기억, 관심, 상상 등의 마음의 내적 작용을 넓은 범위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염려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근심과 우려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생각이나 염려는 사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종의 정신활동이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해서 외부와 접촉하고 자극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생각은 쉴 틈 없이 한 몸을 번잡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잡아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면 바깥 사물에 이끌려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일생을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솔(統率)인데, 곧 마음이 무엇을 의식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항상 내면으로 단속하고 알아차려 주재해야 한다.

마음과 영이 통하면 무소불능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도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서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 없는 것이다. 유기심유(有其心有) 무기심무(無其心無)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 심령 통일도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²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없다고 하여 실제로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 도통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이 공존할 때,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의해 도통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마음의 인식과 지향을 통한 주재함에서 이해해볼

24) 『도전담 훈시』 (1993. 7. 11).

필요가 있다.

생각이란 주재하지 않고 있을 때는 변화무쌍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이를 주재하여 한가지 생각에 집중하면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의 일체는 사라진다. 말문이 막히는 절경을 마주하거나,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두하는 등의 경험에서 자신의 마음이 한 대상만 인지하고 있음을 종종 느끼게 된다. 이때는 한 대상 외에 다른 생각을 의식하지 못한다. 즉 마음의 주재를 통한 인식과 지향은 한 대상에만 집중하여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있게 하고, 다른 일체의 것은 없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주재를 고려할 때, 수도인은 수도인으로서 마땅히 대순진리회의 도와 도를 주재하시는 신앙의 대상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5.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

마음의 주재를 통해 우리는 일정한 대상을 마음에 있게도 하고 없게도 만든다. 정성은 자성의 차원에서 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도의 근원과 성의 덕을 믿고 깨달아 천리를 받드는 것을 말하는데, 대순진리회 수도인에게 이는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²⁵⁾이 된다. 상제를 받드는 정신을 온전히 하고 이를 빈틈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성하고자 함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두려워하여 마음의 주재를 알아차리고 정밀히 경계해야 한다.

자성을 도성으로 온전히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마음의 인식과 지향이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²⁶⁾으로 집중되어 다른 일체의 생각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25) 『대순지침』, pp.51-52.

26) 『대순진리회요람』, p.15.

서는 상제가 가까이 계시는데, 어찌 탄마음을 품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으며, 또한 상제가 가까이 계시는데 어찌 나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단속하지 않으며, 정성에 작은 틈과 험을 보일까 봐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정성으로 마음을 통솔하고 사심을 억제하여 도성 구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²⁷⁾

우리의 마음을 도와 상제를 받드는 것으로 주재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지 못하며,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체의 생각 또한 불성(不誠)하게 된다. 생각이 불성하면 나의 몸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한 불성하고, 불성한 행동의 결과로 나의 자성은 도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불성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불성함은 천리를 거스르는 것으로,²⁸⁾ 결국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는 말

『대순진리회요람』의 성에 대한 구성과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7) 『대순지침』, p.76.

28) 같은 책, p.41, “불성(不誠)은 역리(逆理)이니 망고(網罟)의 자획(自獲)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표 3〉 성(誠)의 구성과 요점

	『대순진리회요람』 - 誠	구성	요점
1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境地)에서	도성 구현을 깨달음	도성과 자성의 두 가지 층위가 있으나 이는 본래 하나이다. 도의 근원과 성의 덕을 믿고 깨달아 천리를 받들고 이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할지니	도성 구현의 목적	창생을 돕고 구제하여, 성에 의한 하늘에 이치에 따라 만물이 온전히 생생화육(生生化育)할 수 있도록 한다.
3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全體)를 통솔(統率) 이용(理用)하나니	도성 구현의 전제	도성의 구현은 마음이 주관하며, 마음을 통해 가능하다.
4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도성 구현의 원리	마음이 무엇을 의식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항상 내면으로 단속하고 알아차려 통솔해야 한다.
5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不足)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	도성 구현의 실천	정성이란 마음의 인식과 지향이 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으로 집중됨을 말한다.

『대순진리회요람』에서 성(誠)은 도와 나의 경계에서 도성과 자성을 언급하지만, 서로 철저히 구분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서 마땅히 도성을 깨닫고, 자신의 자성으로 천리를 받들고 순응하여 도성을 구현해야 한다. 수도의 기본자세로서 성은 ‘성하고자 함[誠之者]’에 초점이 있으며, 우당은 『대순진리회요람』을 통해 성하고자 함에 대한 깨달음과 목적, 전제와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중용』에서 성하고자 함은 “성(誠)해지려고 하는 자는 선(善)을 택하여 굳게 지키는 자이다.”라고 언급에 비취볼 때, 대순사상에서는 이 선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수도인의 입장에서 성하고자 함은

항상 상제가 가까이 있음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시(永侍)의 정신은 결국 자신을 살피 선을 택하고 굳게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도전담 훈시』, 종단 내부 자료.
-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 1956.
- 『중용집주』
- 고남식, 「성과 인간의 가치창조」, 『대순사상논총』 9, 2000.
- 김정태,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9, 2000.
- 김홍철, 「성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 박승식, 「성사상과 수도」, 『대순사상논총』 9, 2000.
- 양무목, 「성의 본질과 성사상의 실천적 구현」, 『대순사상논총』 9, 2000.
- 윤기봉, 「종교수도론 안에서의 삼요체 의미구조: 성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9, 2000.
- 이경원, 「대순진리회의 신조 성에 관한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 _____, 「성의 의미에 대한 사상사적 연구」, 『대순사상논총』 9, 2000.
- 이항녕, 「성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9, 2000.
- 이후설, 「성에 관한 논의」, 『대순회보』 62, 1998.
- 주현철, 「성의 내외향성에 관한 고찰」, 『대순사상논총』 9, 2000.
-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 황종원, 「대순진리와 동학의 성경신 비교 연구」, 『대순진리학술논총』 8, 201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만기(萬機)」,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B%A7%8C%EA%B8%B0> (2022. 11. 8. 접속)

■ Abstract

A Study on the Sincerity in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Choi Chi-bong

Researcher,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s

The sincerity, the first of the Three Essential Attitudes, has been studied many times in and out of Daesoon Jinrihoe to understand the concept. A majority of the researches have quoted the verses in *The Canonical Scripture*, *The Guiding Compass of Daesoon*, and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according to each research topic and used them for the fundamentals of claim. However, sincerity mentioned in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has not been studied as a single research topic.

That is, the concept which Wudang analyzed in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is used as a basis of each argument in the existing articles, but documentary researches on the structure or meaning of sincerity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try to understand sincerity not from the conventional point of view but based on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which Wudang proofread.

Although sincerity in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mentions the sincerity of the Dao and the ego in the borderline between

'self' and the Dao, they are primarily a single entity without differentiating each other. Therefore, as a human, one should realize the Dao and respect the heavenly reason. In addition, one should conform to it and embody the Dao. The sincerity as a basis for cultivation focuses 'becoming sincere.' Wudang brought the enlightenment and purpose, premises, and principle about becoming sincere to light. He also revealed the specific method to practice.

Keywords: Essentials of Daesoon Jinrihoe, sincerity (誠), the sincerity of the Dao (道誠), the sincerity of the ego (自誠), wholehearted devotion (精誠)